

광주 2조5379억... 'AI 산업' 탄력 전남 7조... '블루 이코노미' 청신호

내년 국비 예산 ... 올해보다 광주 3277억·전남 3792억 늘어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광주 2조5379억 원, 전남 7조189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액을 대폭 증액시켜 인공지능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 대중교통만으로 광주를 30분 생활권으로 만들어 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도 대폭 증액됐다.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원 시대를 연 전남은 핵심 프로젝트인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면서 부진한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초소형 방사체 지원사업과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소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은 끝내 반영시키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3면〉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광주시 예산은 올해 2조2102억원 대비 14.8%(3277억원) 늘어난 2조5379억원이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2조4250억원)보다 1129억원 증액됐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인공지능산업,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춰 사업을 마련했고,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시정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은 결과라고 광주시는 자평했다.

광주시는 우선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22건의 신규사업 예산 253억원을 확보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12억원),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10억),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건립(10억), 광주 스타트업 캠프 조성사업(35억) 등 22가지 사업은 애초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들 22가지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4826억원 규모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공사비 등 첫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가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인공지능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예산이 대폭 증액, 반영된 점도 고무적이다. 광주시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안 426억원보다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의 경우 40억원 증액, 65억원이 반영되면서 보다 성대하게 40주년 기념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만으로 광주를 30분 생활권으로 만들어 줄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사업의 경우 국회 단계에서 220억원 증액된 83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이처럼 정부안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모두 21건으로 증액 규모는 87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모두 7조 189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산안(6조7261억원)보다 4635억(6.9%), 전년도 예산(6조 8104억원)에 견줘 3792억원(5.6%) 늘어났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예산안 심사 시기에 맞춰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국회·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전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게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블루 이코노미'의 6개 프로젝트와 관련, 한국폴리텍대 전력기술교육센터(용역비 1억·블루에너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15억·블루투어), 국립삼현관센터 설치(기본계획 수립비 2억·블루바이오), 소재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반조성사업(15억·블루트랜스포트), 신소수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13억·블루농수산), 전남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20억·블루시티) 등이 신규로 반영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의 오랜 현안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보성-순천 구간을 즉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4000억 원을 확보한 목포-보성간 전철화도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1800억 원을 반영, 애초 개통 시기(2025년)를 2023년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1번지' 새 단장 광주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이 3년간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내년 3월 5·18 전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관으로 새단장해 시민들과 만난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일보 사옥으로 쓰였던 전일빌딩은 바로 옆 옛 전남도청과 함께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꼽힌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서 245개의 헬기사격 탄흔을 확인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일빌딩, 5·18 품은 복합문화관으로

리모델링 거쳐 내년 3월 개관 헬기 탄흔 9~10층 '기념공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1번지에 자리잡은 전일빌딩이 안전진단과 구조물 보강 등 3년여 동안의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5·18 전시관'을 품은 복합문화관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1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1980년 5·18 당시 광주일보 사옥으로 쓰였던 전일빌딩은 '전일빌딩 245'라는 명칭으로 내년 3월 개관한다.

전일빌딩 245라는 새 건물 명칭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

해 건물 안팎에서 헬기사격 탄흔 245개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국과수는 80년 5월 당시 전일빌딩(10층)보다 높았던 주변 건물이 없었고, 탄흔 형태 등으로 미뤄 호 버림(정지 비행) 상태에서의 헬기사격 흔적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도로명 주소 또한 '금남로 245'였던 것도 고려됐다.

전일빌딩은 지난 2016년 8월 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 후 3년여 동안 건물 원형 보존을 위한 구조물 보강, 내부 리모델링을 거쳤다. 구조물 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은 기존 C에서 B등급으로 향상됐다. 내부 정리 작업 등을 거쳐 리모델링은 내년 1월 끝난다.

대지면적 2278㎡, 연면적 2만246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전일빌딩은 리모델링을 거쳐 전일빌딩 역사와 5·18전시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층에는 전일빌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이 들어선다. 전일빌딩 모형도 전시된다. 지하 전일빌딩은 '전일다실'로 이름이 바뀌어 앞으로도 시민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활용된다. 2층에는 남도관광홍보 및 마케팅센터, 3층에는 전자도서관이 구축된다. 4층에는 시민생활문화센터와 청년센터, 시민단체센터가 들어서고 5~7층에는 콘텐츠기업에게 임대한다.

8층에는 무등산과 종장로 등 광주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5·18 스카이라운지', 헬기사격 탄흔이 발견된 9~10층에는 5·18기념공간이 조성된다. 8~10층 남은 공간에는 시민다목적홀이 들어선다. 전일빌딩 리모델링에는 국비 130억원을 포함, 총 4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제도기간 1년 ... 사실상 시행 연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제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

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으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제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제도기간이 부여된 기업

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최악 ... "외출 땐 마스크 쓰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올 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졌다.

11일 광주·전남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건국동 130㎍/㎥ ▲오선동 118㎍/㎥ ▲농성동 113㎍/㎥ ▲주월동 104㎍/㎥ ▲송정1동 101㎍/㎥ ▲서석동 92㎍/㎥ ▲두암동 88㎍/㎥ 등

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인 75㎍/㎥(2시간 이상 유지)를 훨씬 웃도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오후 4시 광주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같은 시간 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서도 시간당 평균 93㎍/㎥의 초미세먼지가 관측돼 주의보가 발령됐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록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